

# 고대중국어 '當'의 문법화 小考

- 미래시표지 용법을 중심으로

윤순일\*

## <目 次>

1. 서론
2. 조동사 '當'의 문법화
3. 미래시표지 '當'의 의미
4. 미래시표지 '當'의 분화
5. 결론

## 1. 서론

중국어에서 조동사는 가장 주요한 양상(modality, 情態)<sup>1)</sup>의 표현수단이다. 중국어의 조동사들이 대부분 동사 혹은 형용사와 같은 내용어에서 통시적으로 발전한 형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當'은 상고·중고중국어 시기의 대표적인 상용조동사로 일반동사에서 조동사로 발전한 이후 미래시제의 표지로 그 의미와 기능을 분화시켰다. 양상사의 다의(polysemy) 현상은 범언어적 현상이다.<sup>2)</sup> 고대중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양상(modality)에 대해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Lyons(1977:452)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Palmer(1988)는 양상을 '동적양상(dynamic modality, 動力情態)', 도의양상(deontic modality, 道義情態)',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 認識情態)'으로 삼분하였다. 李明(2001), 彭利貞(2007), 朱冠明(2008)은 Palmer의 3분류법을 기초로 하여, 동적양상에는 '능력', '의지', '용기'를, 도의양상에는 '필요', '의무', '허가'를, 인식양상에는 '필연', '개연', '추측' 등을 각각 하위범주로 설정하였다. 본고가 취한 중국어 양상 의미의 체계도 기본적으로 Palmer의 3분법을 따른다. 다만 하위범주의 구성요소는 기존의 설에 수정을 일부 가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줄고(2014)의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어의 조동사 ‘當’도 도의양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다의조동사에 속한다. 미래시표지 ‘當’은 조동사 ‘當’과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미래시표지 ‘當’에 특정하여 그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조동사 ‘當’의 연원과 발전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王珮雯·叶桂柳(2006), 吳春生(2008), 龍國富(2010), 龍向平(2012), 王繼紅·陳前瑞(2015)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조동사 ‘當’의 직접적인 연원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다. 둘째, ‘當’이 조동사에서 미래시표지로 발전하는 경로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서로 다르다. 셋째, 인식을 나타내는 ‘當’과 미래를 나타내는 ‘當’과의 구분이 모호해서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 넷째, 일부 연구는 문법화이론에 근거한 조건, 기제 등에 대한 서술이 다소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상고·중고중국어 시기의 대표적인 텍스트인 『左傳』, 『孟子』, 『韓非子』, 『呂氏春秋』, 『史記』, 『世說新語』을 선택하여 이들 문헌에서 ‘當’이 출현하는 예문을 추출하고 통사·의미상의 변천에 대해 체계적인 고찰을 하겠다. 아울러 ‘當’의 발전에 작용한 조건과 기제, 동인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 2. 조동사 ‘當’의 문법화

고대중국어의 ‘當’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許慎의 『說文解字』에서는 ‘當’의 본의를 ‘밭이 서로 만나는(值) 것이다(田相值也)’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段玉裁는 ‘만나다(值)는 지지한다(持)는 것이다. 즉, 밭과 밭이 서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인신되어 무릇 서로 지지하고 떠받치는 것을 모두 당(當)이라

2) Sweetser(1990:49-51)는 하나의 양상조동사는 동적, 도의, 인식 세 가지 종류의 양상의 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양태의미 간에는 내재적으로 통시적 발전 규칙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뿌리양상(root modality)에서 인식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고 말한다(值者, 持也. 田與田相持也. 引申之, 凡相持相抵皆曰當.)'라고 주를 달았다. 즉, 밭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그 본의로 여겼다. 『漢語大字典』과 『漢語大詞典』에서는 모두 '當'의 본의를 『說文解字』의 해설보다 일반화된 의미인 '~으로 향하다(對着, 向着)'(예(1))로 설명하고 있다. '當'은 상고중국어 시기에 이미 '~으로 향하다'에서 '대응하다, 상당하다(對等, 相當)'(예(2))와 '담당하다, 충당하다(担任, 充當)'(예(3)), '맡다, 감당하다(承担, 承受)'(예(4)), '가로막다, 지키다(阻擋, 把守)'(예(5)) 등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켰다. 아래는 각각에 대응되는 예문이다.

- (1) 則天子當陽, 諸侯用命也. (천자는 남방을 향하고 제후는 명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左傳·文公四年』
- (2) 小國之上卿, 位當大國之下卿, 中當其上大夫, 下當其下大夫. (소국의 상경은 그 지위가 대국의 하경에 상당하고, 중경은 상대부에 상당하고 하경은 하대부에 상당한다.) 『禮記·王制』
- (3) 子曰, 當仁, 不讓于師.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에 대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論語·衛靈公』
- (4) 大王反國, 非臣之功, 故不當其賞. (대왕께서 나라에 돌아오신 것은 신의 공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 상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莊子·讓王』
- (5) 鄭子元請爲左拒, 以當蔡人, 衛人. (정의 자원은 좌거의 진을 써서 채나라 사람과 위나라 사람들을 막기를 청하였다.) 『左傳·桓公五年』

이상의 동사용법 '當'은 모두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명사성성분을 목적어를 취한다.

의무용법 '當'의 연원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서로 다르다. 白曉紅(1997)은 '대하다(對着)'와 '감당하다(承當)'를 의무용법 '當'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보았으

며, 龍國富(2010)는 ‘알맞다(合适)’로, 王玥雯·叶桂彬(2006), 王繼紅·陳前瑞(2015)은 ‘대등하다(對等)’, ‘상당하다(相當)’의 의미를 그 연원으로 보았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겠다.

- (6) 小國之上卿, 位當大國之下卿, 中當其上大夫, 下當其下大夫. (소국의 상경은 그 지위가 대국의 하경에 상당하고, 중경은 상대부에 상당하고 하경은 하대부에 상당한다.) 『禮記·王制』

‘當’의 동사적 용법 가운데 ‘대등하다, 상당하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에서는 ‘當’은 주어(N1)와 목적어(N2)의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때 화자는 청자에게 화용적 측면에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규율이나 규범에 해당되는 모종의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6)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소국에게 적용되는 예법을 대국과 비교해가며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국의 상경, 중경, 하경에 각각 상응하는 대국의 직위를 제시하고 있다.

- (7) 王聞之, 召武子曰: “季氏! 而弗聞乎? 王享有體薦, 宴有折俎, 公當享, 卿當宴. 王室之禮也.” (왕이 그것을 듣고 무자를 불러 말하기를, “계씨여 듣지 못했는가? 왕의 향례에는 크게 자른 고기가 있고, 연례에는 잘게 자른 고기가 있다. 제후는 향에 해당되고, 경은 연례에 해당되니, 이것이 바로 왕실의 예이다.”고 하였다.) 『左傳·宣公十六年』

기존의 연구들은 (7)의 ‘當’을 조동사로 사용된 초기의 예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모두 (6)과 동일한 ‘상응하다’ 혹은 ‘대응된다’의 의미의 동사적 용법으로 판단한다. 목적어인 향(享)과 연(宴)은 본래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여기에서는 각각 예법의 한 등급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도로 지칭화되어 추상적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제를 구성하는 VP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當’은 여전히 동사로 처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용례는 조동사 ‘當’의 형성의 예비적 단계를 구성한다

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 화자는 청자에게 제후(公)의 예법은 향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경(卿)의 예법은 연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면 이와 같은 왕실의 예법은 일종의 도덕적 규범에 속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화자는 이미 모종의 당위적인 판단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반대로 청자는 일종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전국말기의 문헌인 『韓非子』와 『呂氏春秋』에는 위와 유사한 예가 다수 출현한다.

이는 은유의 작용에 의한 범주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즉, '當'의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범주가 확장된 것이다. 예법, 법률 등 사회적 도덕적 규범에 관한 문맥에서 동사 '當'은 '~에 상응하다'라는 원형의미에서 '~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의 파생의미로 기능을 확장시켰으며 이러한 '當'이 사용된 문장은 대개 고도의 당위성을 내포하는 문맥에 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當'은 그 뒤에 용언목적어를 취하여 'V+VP'구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8) 爲人臣不忠, 當死. 言而不當, 亦當死. (신하로서 불충하면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말하였으나 맞지 않은 자도 또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韓非子·初見秦』

(9) 平也者, 皆當察其情, 處其形. (천지의 형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곳의 실정을 살피고, 그 형체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呂氏春秋·有始』

위의 예문들에서의 동사 '當'은 통사적으로 용언목적어를 취하여 표층구조에서 쌍동사구문 'NP+V<sub>當</sub>+VP' 구조를 형성한다. 의미적으로 '當'을 제외한 주술구조 'NP+VP'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도덕적 규율이나 규범에 해당되는 동작이나 행위를 서술하고 있으며, 'V<sub>當</sub>'은 쌍동사구문에서 의미의 중심이 된다. 이상과 같은 통사적·의미적 환경이 조동사 '當'의 문법화 조건이 된다.

여기에서 VP의 문맥상의 의미는 V<sub>當</sub>의 의미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

것이 바로 문맥적 재해석<sup>3)</sup>의 과정이다. (9)의 VP '察其情'은 본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지만 해당 문맥에서는 예법에 해당되는 당위적 행위를 나타낸다. 이 당위적 행위가 '當'의 여러 잠재적 의미 가운데 '당위' 혹은 '의무'와 관련된 의미를 파생시키는 원인이 되어 '의무'가 '當'의 독립적인 의미항으로 성립되게 된다. 위의 'NP+V<sub>當</sub>+VP'구조에서 의미의 중심이 V<sub>當</sub>에서 VP로 이동하게 되면 '當'은 일반동사에서 조동사로 문법화되고 전체구조는 'NP+Aux<sub>當</sub>+VP'로 재분석(reanalysis)된다. 이때 '當'은 기존의 '부합하다'와 같은 어휘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NP+VP'가 대표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판단 즉, '의무'라는 새로운 문법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當'에 의해 'NP+Aux<sub>當</sub>+VP' 구조 전체도 양상의 의미를 띠게 된다.

(8)과 (9)은 학자들에 의해 의무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전형적인 예문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본고도 또한 위의 두 '當'이 의무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두 예문 모두 '~에 해당된다' 혹은 '~에 부합된다'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시기의 '當'은 조동사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문맥적 재해석은 국지적인 환유의 과정으로 대개의 경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공시평면에서 종종 신층위와 구층위가 공존하는 층위화 현상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중의 현상도 층위화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동사 '當'의 형성에 문맥적 재해석이 중요한 기제가 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10) 公子曰，晉鄙嚙嚙宿將，往恐不聽，必當殺之。(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비는 용맹스러운 노장으로 내가 가도 아마 듣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 『史記·魏公子列傳』

(11) 生昌，有聖瑞。古公曰：“我世當有興者，其在昌乎？”(창(昌)이 태어날 때 성스러운 길조가 있었다. 고공은 “우리 세대에 큰일을 일으

3) 언어사용자들의 담화상의 화용적 조작에 의해 환유가 나타난다. 즉, 어떤 발화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 개념은 그 사용된 문맥적 특성에 의해 의미가 조절된다. 이것을 문맥적 재해석이라고 한다. (Heine et al. 1991:71)

킬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창이 아닐까"라 했다.) 『史記·周本紀第四』

서한(西漢)대 문헌인 『史記』에는 (10)와 같이 도의양상을 나타내는 '當'뿐만 아니라 (11)과 같이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當'도 다수 출현하고 있다. 영어의 'will, must, should' 등과 같이 도의양상에서 인식양상으로 발전되는 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이다. 이는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mapping)로 인한 의미의 주관화와 관련이 깊다. 현실세계에서 구체적 행위에 대한 당위성의 부여가 가능세계로 투사되면, 이는 곧 논리적 추론에 있어서 모종의 명제에 대한 판단의 결론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sup>4)</sup> 『韓非子』와 『呂氏春秋』에는 유사한 용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當'의 인식용법은 대략 서한(西漢)대에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史記』에서 인식의미를 나타내는 'NP+Aux<sub>當</sub>+VP' 구문은 대개 예법, 점괘, 진료와 관련된 미래사실에 대한 예측을 다수 포함한다. 화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은 의무양상과 유사하게 관상법, 점술법, 왕실의 예법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의 권위를 갖는 규범이나 법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여전히 화자는 그 권위성에 대해 재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미래시점에서의 사태의 출현에 대하여 주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인식용법의 '當'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未然) 사건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他身体一定很好'나 '這儿一定有人來過'와 같이 화자가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 추측을 하는 문장은 『史記』에 보이지 않는다. 환언하면, '當'의 의무용법과 인식용법은 사건의 시간성에 있어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데, 이

4) Sweetser(1990:52, 59-60)는 이 과정을 힘과 장벽의 사회 심리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Sweetser는 Talmy(1988)에 의한 힘-역학(force-dynamics) 개념을 바탕으로 영어의 양상 조동사 'may'가 동작주 지향 양상과 인식양상 두 용법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동작주 지향 용법의 'may'는 사회-물리적 세계(socio-physical world)에서 사건의 실행을 막는 장벽(barrier)이 존재하지 않음을 함의하는 반면, 인식용법의 'may'는 이용 가능한 전제들로부터 화자의 추론 과정을 막을 장벽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인식양상으로서의 변화는 사회-물리적 세계에서 이성과 믿음의 세계로의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mapping)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는 의무에서 인식으로의 발전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은유적 투사에 의한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

### 3. 미래시표지 ‘當’의 의미

‘當’이 주로 미래의 사건에 한정되어 쓰였으며 명제의 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 학자들은 서한시기의 ‘當’이 이미 현대중국어의 ‘將’, ‘將要’에 상당하는 미래시표지 혹은 시간부사로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王繼紅·陳前瑞(2015)가 미래시표지로 분류한 예문이다.

- (12) 自卜數日當爲侯, 從其家之長安.(스스로 점을 치니 수일이면 제후가 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 집을 따라 장안으로 갔다.) 『史記·外戚世家』
- (13) 公子光者, 王諸樊之子也. 常以爲吾父兄弟四人, 當傳至季子.(공자광은 오왕 제번의 아들이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형제가 넷이 있는데 마땅히 왕위가 차례로 전해져 계절에 이를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史記·吳太伯世家』
- (14) 長桑君亦知扁鵲非常人也. ……乃出其懷中藥予扁鵲: “飲是以上池之水, 三十日當知物矣.”(장상군도 또한 편작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 품에서 약을 꺼내 편작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빗방물에 섞어 마신 뒤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오.”) 『史記·扁鵲倉公列傳』
- (15) 夏太后子莊襄王葬芷陽, 故夏太后獨別葬杜東, 曰: “東望吾子, 西望吾夫. 後百年, 旁當有萬家邑”.(하태후의 아들 장양왕은 지양에 묻혔으므로 하태후는 두원의 동쪽에 홀로 묻혔다. 그는 이전에 말했다. “동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고, 서로 내 남편을 바라본다. 100년 뒤에는 그 곁에 분명 만 호의 읍이 있을 것이다.”) 『史記·

## 呂不韋列傳』

王繼紅·陳前瑞의 견해에 따르면, 관상, 점복, 진료와 같은 문맥에서 화자는 '當'을 통해 청자에게 일종의 미래 사실에 대한 예언을 전달한다. 화자는 명제의 실현여부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소멸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當'은 NP+VP가 나타내는 사태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출현할지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미래시표지에 속한다는 것이다.<sup>5)</sup> 그 기준에서 보면 『史記』에서 미래 사건에 쓰인 '當'의 용례 대부분은 조동사가 아닌 미래시표지에 해당된다. 본고는 『史記』에서 일부 '當'이 단순히 미래시제만 나타내는 표지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위의 판별기준에는 이견이 있다.

Bybee et al.(1994:280)에서 미래시제는 두 가지의 의미요소 '의도(intention)'와 '예측(prediction)'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범주가 아니라 오히려 동작주 지향의 인식양상과 유사하며, 여기에 중요한 시간적 정보만을 추가하였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張萬禾·石毓智(2008)는 조동사와 미래시표지의 분류에 있어 '의도'의 유무를 중요한 판별기준으로 삼았다. 예컨대 현대중국어의 '要'가 '예측'의 의미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단순미래시표지로, '예측'과 '의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복합미래시표지로,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순수한 양상의미만 나타내는 조동사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래 (16)의 '要'는 화자의 의도성이 배제된 단순미래시표지이며, (17)의 '要'는 '예측'과 '의도'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미래시표지이고, (18)은 '의도'만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해당된다.

5) 王繼紅·陳前瑞(2015)가 고대중국어 '當'에 대하여 설정한 미래시의 범주는 매우 넓은 편이다. 예를 들어, 점복, 관상, 진료의 예측이나 예언을 모두 고도의 확정성을 전제로 하는 화자의 인식이 배제된 미래시표지 용법으로 처리하였다. 본고는 논리적으로 인식양상과 미래시 사이에는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의 유무라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 차이를 사어(死語)에 적용시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다.

- (16) 你必須馬上走, 我有預感, 今晚要出事. (너는 반드시 즉시 가야한다. 나는 예감이 있다. 오늘 밤에 일이 날 것이다.)(侯珍『侯宝林微笑着告別人生』)
- (17) 有一天, 你說過, 要把我們的事情告訴老爺的.(어느 날 너는 우리들의 일을 어르신에게 아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曹禺『雷雨』)
- (18) 你告訴他, 工人代表魯大海要見他.(당신은 그에게 노동자 대표 루마하이에게 그를 보려고 한다고 알려시오.)<sup>6)</sup>(曹禺『雷雨』)

하지만 본고는 (16)과 같은 순수한 '예측'의 경우에도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16)에서 화자는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사건(今晚出事)의 출현에 대하여 단순한 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화자는 여전히 본인의 상식에 근거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비록 사건의 실현 여부는 화자 혹은 동작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정되지만, 화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잔존한다. 彭利貞(2007:140)은 미래사건과 함께 출현하는 '要'가 일반적으로 전형적 미래시표지로 알려진 '將'으로 교체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要'가 단순히 미래시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식양상도 함께 나타내는 복합표지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7)</sup>

본고는 '예측'이 '의도'와 함께 미래시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의미요소가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예측'에 화자의 인식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되

6) 예문 (16)~(18)은 張萬禾·石毓智(2008)에서 인용하였다.  
 7) 彭利貞(2007:140)은 아래와 같은 예문의 '要'는 순수하게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將'으로 교체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영어의 'will'과 같이 '要'가 미래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사건이 발화시각의 미래세계에서 곧 실현될 것에 대한 필연성에 대한 추단(推斷)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 要下雨了. (비가 곧 오려고 한다.)  
 (b) 方叉子搖搖擺擺, 絕望地在上頭東奔西走, 像一只無家可歸的餓狼, 眼看就要倒下去了. (劉恒『黑的雪』) (팡차즈는 휘청휘청하며 절망스럽게 위쪽에서 동분서주하었는데, 마치 한 마리 돌아갈 곳 없는 굶주린 이리 같아서, 보면 곧 쓰러질 것 같았다.)  
 (c) 我迷迷糊糊地快要睡着了, 也沒听清, 嚶嚶地點頭. (王朔『過把癮就死』)(나는 혼미하여 곧 잠이 들려고 했고, 정확히 듣지 못해 응응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화자의 판단이 개입된 인식적인 예측과 확정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비인식적인 예측으로 양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魯曉琨(2004:175)이 제시한 기준은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다. '要'가 [미래시간사+要+VP]의 문맥에서 출현하고 VP가 [+통제(可控)]의 행위를 나타낼 때 '要'가 순수한 미래시표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19) 明年, 我要去外地工作, 不得不離開家. (내년에 나는 일을 하러 외지로 갈 것이다.)

(20) 坏了, 今晚要出事. 咱們得馬上走. (큰일났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가야해.)<sup>8)</sup>

위의 예문에서 '要'는 모두 조동사의 위치에 사용되었으며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VP 앞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들 두 용법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19)에서 VP '去外地工作'는 NP '我'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다. 즉, VP의 실현은 NP의 의도에 좌우된다. 화자는 여기서 NP가 이미 실행하기로 결정한 NP+VP 즉 '我去外地工作'의 상황이 '明年'이라는 미래의 참조시간에 실현될 것임을 단순히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要'는 단순미래시표지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비인식적 예측에 속한다. 반면, (20)에서 VP '出事'는 NP '今晚'이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NP+VP'가 나타내는 사건은 NP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한 모종의 외부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그 모종의 조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의 '要'는 화자가 미래의 한 시점에 'NP+VP'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인식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환언하면 비인식적 예측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要' 뒤의 VP의 [통제(可控)] 여부는 '要'의 [의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要'의 의미는 '단순미래시'와

8) 예문 (14)와 (15)는 魯曉琨(2004:173, 175)에서 인용하였다.

미래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각각 구분된다.

위의 방법을 ‘當’에도 적용시켜 VP의 [통제(可控)] 여부에 따라 ‘當’의 [의도] 여부를 변별할 수 있다. 만약 VP가 [+통제(可控)] 인 경우에는 ‘當’은 [-인식]을 함의하고, [-통제(可控)]일 경우에는 [+인식]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조동사 ‘當’의 용법은 논리적으로 ‘예측’과 ‘인식’의 유무에 근거하여 단순히 인식양상만 나타내는 조동사[-예측][+인식], 인식양상과 미래시를 모두 나타내는 복합표지[+예측][+인식], 단순미래시표지[+예측][-인식]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중고 중국어시기에 인식의미로 쓰인 ‘當’이 과거나 현재의 사건에 쓰인 용례는 없다. 실제적으로는 복합류 인식양상 조동사와, 단순미래시표지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21) 天子聞之，怒，使使責讓安國。徙安國益東，屯右北平。是時匈奴虜言當入東方。(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보내 한안국을 꾸짖고 그를 더 동쪽으로 옮겨 우북평군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때 흉노의 포로가 흉노 군대가 동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史記·韓長孺列傳』

(22) 嫪之許負所相，相薄姬，當生天子。(위은은 허부(許負)에게 가서 관상을 보았는데, 그에게 박희의 관상을 보게 하였더니, 마땅히 천자를 낳을 것이라고 하였다) 『史記·外戚世家』

(21)에서 VP ‘入東方’은 문맥상 未然의 사건이다. 또한 문맥에 의해 생략된 동작주 NP 흉노군이 [통제(可控)]할 수 있는 일이다.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NP+VP’의 실현은 전적으로 동작주 ‘NP’의 의도에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동작주의 의도를 배제하고서 그 실현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화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동작주의 의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래의 의도에 대한 판단’은 미래시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요소인 ‘의도’와 ‘예측’과 상통한다. 즉, 화자는 명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사실

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22)에서 VP '生天子'는 문맥에 의해 생략된 주어 '薄姬'에게 있어 [통제(可控)]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NP+VP'가 나타내는 사건 즉, 박희가 천자를 출산한다는 사실의 실현은 모종의 외부조건이 전제되었을 때에 한하여 실현되며, 그 외부조건은 주어 '薄姬'의 의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화자는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그 조건의 성립에 대하여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문장에서 화자의 판단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當'은 인식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분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면, 앞의 (12)~(15)의 예문은 모두 인식용법으로 재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史記』에서 미래사건에 쓰인 '當'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인식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미래시표지로 쓰인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중고중국어 시기의 문헌인 『世說新語』에는 미래시표지로 쓰인 '當'의 예가 매우 많다.

(23) 謝胡兒語庾道季：“諸人暮當就卿談，可堅城壘。”(사호아가 유도계에게 말했다. “모두가 오늘 밤 그대에게 가서 담론을 벌일 것이요. 방어를 굳게 해야겠소.”) 『世說新語·言語第二』

(24) 玄就車與語曰：“吾久欲注，尙未了；聽君向言，多與吾同。今當盡以所注與君。”遂爲服氏注。(정현은 수레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래도록 주를 쓰고자 했으나 아직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소. 아까부터 그대가 하는 말을 듣자니 나와 같은 점이 많다. 지금 내가 쓴 주를 모두 그대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씨의 주가 되었다.) 『世說新語·文學第四』

(23)과 (24)의 '當' 모두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지 않는다. 화자는 확정적인 미래의 사실을 청자에게 단순히 전달하고 있다. 아래는 '當'의 서로 다른 용법이 각 시기별로 사용된 빈도의 통계이다.

구분 \ 문헌	『左傳』	『孟子』	『韓非子』	『呂氏春秋』	『史記』 (本紀·世家)	『世說新語』
동사	64 [90.1%]	12 [50%]	100 [72.9%]	107 [82.9%]	79 [39.9%]	26 [13.7%]
조동사 [도의]	0 [0%]	0 [0%]	2 [1.5%]	3 [2.3%]	45 [22.7%]	27 [14.2%]
조동사 [인식]	0 [0%]	0 [0%]	3 [2.1%]	1 [0.8%]	16 [8.1%]	71 [37.4%]
미래시표지	0 [0%]	0 [0%]	0 [0%]	0 [0%]	0 [0%]	45 [23.7%]
기 타	7 [9.9%]	12 [50%]	32 [23.4%]	18 [14%]	58 [29.3%]	21 [11.1%]
전 체	71	24	137	129	198	190

한편 朱冠明(2008:78-79)에 따르면 미래시표지 ‘當’은 중고시기의 문헌인 『僧祇律』에서 인식용법으로 쓰인 ‘當’보다 훨씬 높은 빈도(약 12%)로 출현한다.<sup>9)</sup> 본고는 이상의 판별기준과 통계를 종합하여 ‘當’의 미래시표지 용법은 중고중국어시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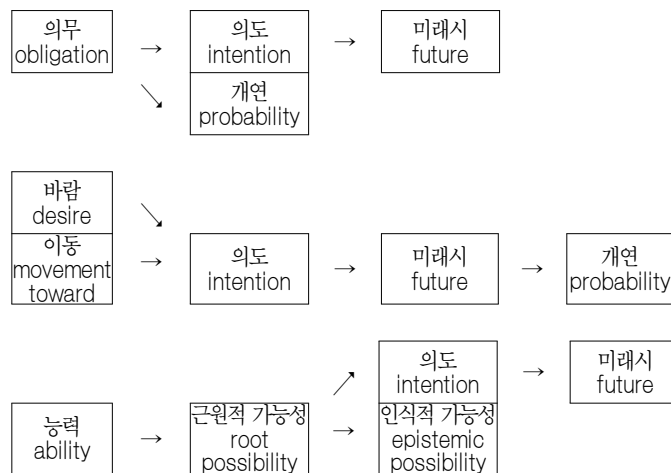
#### 4. 미래시표지 ‘當’의 분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시표지 ‘當’의 문법화 경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상이하다. 朱冠明(2008)은 [의무]를 나타내는 ‘當’의 주어가 1인칭일 경우 미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當’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판단했다. 王瑋雯·叶桂柳(2006)은 시간부사 ‘當’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조동사 ‘當’의 [추측]과 [의지] 두 가지 양상의미를 모두 제시하였으며, 龍國富(2010)는

9) 朱冠明(2008:78-79)의 통계에 의하면 『僧祇律』에서 ‘當’은 총 2685회 출현하였는데, 그 가운데 도의양상 조동사로 사용된 예문이 2125회(79.1%), 인식양상 조동사로 사용된 예문이 191회(7.1%)이다. 반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 예문은 323회(12%) 출현하였다.

[의무]와 [추측] 두 가지 양상의미를 시간부사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보았다. 王繼紅·陳前瑞(2015)는 [추측]이나 [의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미래시표지 '當'은 대부분 [의무]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Bybee et al.(1994:240, 263, 266)는 유형학적 연구를 통해 양상의미와 미래시의미 사이의 통시적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은 경로로 귀납하였다.



위의 세 도식은 모두 미래시를 언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래시'로의 발전에 모두 '의도'가 선행되었다는 점과, '미래시'와 인식의미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고시기에서 『史記』에 이르기까지 '當'이 '의도'로 쓰이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史記』를 기준으로 보면, '미래시'의 형성에 필수적인 선행단계인 '의도'는 출현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인식 용법만 다수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當'의 '미래시'의 연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본고는 미래시표지 '當'이 도의양상 [의무]에서 직접 발전되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도의양상과 '의도'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5) 你要吃飯.(너는 밥을 먹어야 한다)

(26) 我要你吃飯.(나는 네가 밥을 먹기를 원한다)

(26)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의양상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화자는 동작주인 ‘你’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25)는 논리적으로 ‘의무’의 부여관계가 동일한 겹어문의 형식 (26)으로 전환할 수 있다. (26)과의 비교를 통하여 (25) ‘吃飯’의 동작주 ‘你’에 대한 ‘의무’의 부여는 화자 ‘我’의 입장에서의 주관적 ‘의도’를 내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의무’, ‘허가’와 같은 도의양상은 내재적으로 화자의 ‘의도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도성’은 ‘要’가 미래시표지로 발전되는데 핵심적인 의미요소로 작용한다. [의무]의미 ‘當’에도 동일하게 화자의 의도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의도성은 동작주의 의도성으로 추론되고 관습화되어 미래시표지 ‘當’의 핵심적 의미요소로 발전된다.<sup>10)</sup> 다시 (21),(22)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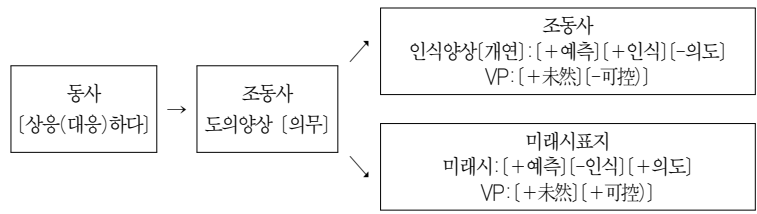
(21) 天子聞之, 怒, 使使責讓安國. 徙安國益東, 屯右北平. 是時匈奴虜言當入東方.(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보내 한안국을 꾸짖고 그를 더 동쪽으로 옮겨 우북평군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때 흉노의 포로가 흉노 군대가 동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史記·韓長孺列傳』

(22) 媼之許負所相, 相薄姬, 當生天子. (위은은 허부(許負)에게 가서 관상을 보았는데, 그에게 박희의 관상을 보게 하였더니, 마땅히 천자를 낳을 것이라고 하였다) 『史記·外戚世家』

10) 이성하(1998:253)은 Bybee et al.(1994:199)에서 논의한 영어 양상조동사 ‘should’의 의미 분화를 (a)의 도식과 같은 함축(implicature)과 추론(inference)에 의한 문법화로 설명하였다. 이를 ‘當’이 [의도]를 획득하는 과정에 적용하면 (b)와 같은 추론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a)	의무성	>	의무성	>	의무성	>	개연성
			(+개연성의 함축)		(+개연성의 관습화)		
(b)	의무성	>	의무성	>	의무성	>	의도성
			(+의도성의 함축)		(+의도성의 관습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시의 핵심적인 의미요소는 '의도'와 '예측' 두 가지이다. (21)과 같이 未然의 상황에서 VP가 [-통제]인 경우에는 사태의 실현은 동작주의 의도와 무관하며, 모종의 외부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 조건의 성립여부에 대해 화자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때 '當'의 의미는 [+예측][+인식][-의도]의 의미요소를 갖는 인식양상으로 발전되었다. 반대로 (22)와 같이 VP가 [+통제]인 사건의 실현은 전적으로 동작주의 의도에 달려있다. 이처럼 동작주의 의도성이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 '當'에 함축되어 있던 화자 NP의 의도는 동작주 NP의 의도로 추론되며, 'NP+VP'가 나타내는 사건은 그 실현이 전적으로 동작주 NP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확정성이 높은 미래사건이 된다. '當'의 [의무]의미에서 인식의미가 파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當'의 [의무]의미가 未然의 상황에서 은유적 투사에 의해 [+예측][-인식][+의도]의 의미요소를 갖는 미래시표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當'의 인식용법과 미래시표지용법은 VP의 [통제] 여부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이는 다음의 도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 4. 결론

본고는 상고·중고시기를 대표하는 6종 문헌에 출현하는 '當'의 조동사용법과 미래시용법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고, 동시에 연원과, 문법화 시기, 문법화 경로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은 논의의 결론이다.

첫째, 조동사 '當'은 '상응하다, 대응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문법화되었다.

둘째, 상고중국어 시기 특정 문맥에서 'N1+V<sub>當</sub>+N2' 구조의 N2은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V<sub>當</sub>'이 용언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NP+V<sub>當</sub>+VP'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조동사 '當'이 문법화되는 의미적, 통사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춘추말, 전국초에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셋째, 문맥적 재해석에 의해 'V<sub>當</sub>'이 [의무]의미를 획득하여 조동사로 문법화되고 'NP+V<sub>當</sub>+VP' 구조는 'NP+Aux<sub>當</sub>+VP'으로 재분석된다.

넷째, [+未然], [+可控]의 'VP'에 쓰인 도의용법 'Aux<sub>當</sub>'의 '의무성'은 관습화에 의해 동작주의 [의도]로 추론되며, 은유적 투사에 의해 [예측]의 의미를 획득하여 미래시표지로 발전된다. [+未然], [-可控]의 'VP'에 쓰인 도의양상 'Aux<sub>當</sub>'은 동작주의 [의도]를 함축하지 않는다. 은유적 투사에 의해 [인식]의 자질을 획득하여 [개연]을 나타내는 인식양상으로 발전한다.

다섯째, '當'의 두 양상용법은 전국말기에 형성되어 서한시기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미래시표지 용법은 서한시기에 출현하여, 동한 이후 중고중국어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 〈參考文獻〉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禮記』(1980), 『十三經註疏』, 北京: 中華書局.  
 『論語』(1980), 『十三經註疏』, 北京: 中華書局.  
 [漢]許慎撰, [清]段玉裁注(1988),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清]郭慶藩撰, 王孝魚點校(1961/2012), 『莊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戰國]韓非撰, 陳奇猷校注(2000), 『韓非子新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劉宋]劉義慶撰, 徐震堦校注(1984/2011),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戰國]呂不韋撰, 張雙棣等譯註(2007), 『呂氏春秋』, 北京: 中華書局.  
 [漢]司馬遷撰(1959/2009), 『史記』, 北京: 中華書局.  
 楊伯峻編著(1981/2009),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楊伯峻譯註(1960/2003), 『孟子譯註』, 北京: 中華書局.

- 白曉紅(1997), 「先秦漢語助動詞系統的形成」, 『語言學論叢』 第七輯, 北京: 語文出版社, 211-229.
- 李 明(2001), 『漢語助動詞的歷史演變研究』, 北京大學博士論文.
- 龍國富(2010), 「動詞的時間範疇化演變: 以動詞“當”和“將”為例」, 『古漢語研究』 4期.
- 龍向平(2012), 「“當”字副詞、介詞、連詞用法的形成——“當”字語法化及其演變機制淺析」, 『凱里學院學報』 5期.
- 魯曉琨(2004), 『現代漢語基本助動詞語義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彭利貞(2007), 『現代漢語情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石毓智·白解紅(2007), 「將來時的概念結構及其詞彙來源」, 『外語教學與研究』 1期.
- 王玥雯·叶桂柳(2006), 「從情態範疇到將來範疇——試論漢譯佛經中將來時標誌“當”的語法化」, 『現代語文』 8期.
- 王繼紅·陳前瑞(2015), 「“當”的情態與將來時用法的演化」, 『中國語文』 3期.
- 吳春生(2008), 「“當”的語法化」,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 2期.
- 尹淳一(2014), 『「祖堂集」情態動詞及其語法化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 張萬禾·石毓智(2008), 「現代漢語的將來時範疇」, 『漢語學習』 5期.
- 朱冠明(2008), 『摩訶僧祇律』情態動詞研究,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 Bybee Joan, Revere Perkins & William Pagliuca 저, 박선자, 김문기 옮김(2010), 『문법의 진화: 시제, 상, 양태』, 소통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yons, J. (1977) *Semantic (V.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eetser, Ev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中文提要〉

本文试图探讨将来时标记“当”的语法化过程。我们对上古中古时期的六种文献里出现的“当”字进行穷尽性分析, 并探讨它的演变时期、条件、机制等问题。研究结论为如下:

一、[义务]义助动词“当”是从表“相应、对应”的动词演变而来的。

二、上古时期，有些“N1+V当+N2”结构中的“N2”经常表示社会上、道德上的规范或规律，此时全句带有较强的义务义。如果这种结构中的“V当”带上谓词性宾语，就形成“N1+V当+VP”结构。此为助动词“当”的语法化条件。这种形式频繁出现在春秋末、战国初期的文献里。

三、通过语用推理和吸收等机制“当”字就获得[义务]义，此时“V当”就转变为助动词，“NP+V当+VP”结构也重新分析为“NP+Aux当+VP”。

四、用在[+未然][+可控]的VP前的道义类“当”暗含着施事的[意图]，通过隐喻性投射就获得[预测]因素，从而发展出将来时标记。用在[+未然][-可控]的VP前的道义类“当”无法暗含着施事的[意图]，通过隐喻性投射就获得[认识]因素，从而发展出认识情态[盖然]义。

五、“当”的[义务]、[盖然]等情态用法大致产生于战国末期，到了西汉开始普遍使用。将来时标记用法已在西汉时期产生，但到了东汉以后才开始普遍使用。

關鍵詞：道義情態, 認識情態, 將來時, 語法化, 當

주제어: 도의양상, 인식양상, 미래시, 문법화, 당

이 논문은 2016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